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1)

—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3월 12일 강의 계획서

들어가는 강의

1. 교회 시대의 분류

2.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을 공부하는 이유

- (1)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뿌리
- (2) 초대교회 신자들의 정체성: “그 길을 걷는 자”
- (3) 자료들에 대한 이해

첫 번째 그룹: 바오로 서간과 사도행전

두 번째 그룹: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유적물 자료들,
사회학자들이 밝혀낸 1세기 사람들의 삶의 자리,
그리스도교의 원시예술작품들

세 번째 그룹: 로마와 유다의 역사 기록물들
교부 에우세비우스가 쓴 교회사

- (4)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 루카문서의 두 번째 책
- (5) 사도행전의 수신자, 테오필로스(Θεόφιλος)에 대한 연구
 - 테오필로스는 상징적/가공적 인물인가?
 - 실재 인물, 역사적 인물인가?
 - 테오필로스를 불린 사람의 실제 이름은?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Titus Flavius Clemens)

1. 교회 창립을 위한 준비

1.1.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의 행적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사도 1,2-3)

- (1) ‘훈련 받는 자’(=제자)에서 ‘파견된 자’(=사도)로
- (2) 사십 일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 (3) 예수님이 사십 일 동안 머물러 계셨던 이유들
- (4)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늘 사도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이유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사도 1,4-5)

- (1)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
 -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 세상의 축(*axis mundi*)이기에
 -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이기에
 - 예루살렘은 예수님 구원사업의 핵심 사건들이 이뤄진 장소이기에
- (2)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명령
 - 왜 사도들은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 세례자 요한의 물세례와 신약시대의 성령세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직역)

- ‘온 유다’
- 사도행전의 구조
 - ① 서문(사도 1,1-11)
 - ②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전도(사도 1,12-8,3)
 - ③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전도(사도 8,4-11,18)
 - ④ 땅 끝까지 복음전도(사도 11,19-28,31)¹⁾

1) 땅끝까지의 복음전도는 다음처럼 세분된다.
 ① 11,19-15,35(안티오키아 중심의 소아시아 선교)

- ‘땅 끝’은 어디?
- 예수님이 선교의 순서를 정해주신 까닭
-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의 지상명령(至上命令)
-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했던 사도들과 성도들
- 세상 어떤 종교도 그리스도교만큼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았다
-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마침내 구름에 싸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은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9-11)

- 예수님의 승천은 30년이나 31년경
- 예수님은 왜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었는가?
 - ① 예수님의 승천은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
 - ② 역사적 예수님과 신앙의 그리스도 사이에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 주님의 승천 장면
- “흰 옷을 입은 사람 둘”
-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 ① 하늘만 쳐다보는 태도(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
 - ② 땅만 쳐다보는 태도(재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 재림 지연과 관련해서 오늘날에도 발견되는 잘못된 두 가지 태도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사도 1,13-14)

㉠ 15,36-19,20(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복음 선교)

㉡ 19,21-28,31(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 ‘위층 방: 휘페로이온(ὑπερωλιον)
- 사도단의 으뜸인 베드로
- 루카가 사도들과 함께 하고 있던 이들 중 세 그룹만을 적은 이유
-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예 전념하다
- ‘여러 여자들’은 여성 제자들의 리더들을 가리킨다
- 남녀가 서로 섞여서 기도예 전념했을까?
- ‘그분의 형제들’
 - (1) 야고보를 비롯한 주님의 친인척 형제들
 - (2) 주님의 형제들은 언제 회심하게 되었는가?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백스무 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 . .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사도 1,15-22 직역)

-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서 사도단을 12로 채우도록 명하심
- 사도단이 꼭 12이 되도록 1명을 추가해야 했는가?
- 열두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세 가지
- 세속의 인사 충원 방식을 따르지 않은 사도들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빠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사도 1,23-28)

-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은 딱 두 명

- 새로운 사도를 뽑는 절차
 - ① 제비뽑기로
 - ② 제비뽑기 전에 신뢰에 가득찬 기도를 드리고
- 마티아가 사도로 뽑힘
- 우리도 사도들처럼 제비뽑기를 통해 봉사자를 뽑을 것인가?
- 사도단의 충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가?
-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제비뽑기를 했는가?